

고교 졸업생 줄고 수도권에 뺏기고

추경 10조 등 20조 펀다

정부, 경기부양 나서 ... 경제성장률 전망 2.8%로 하향



위기의 지역대학

<1> 입학할 학생이 없다

대학입학 정원) 고교 졸업생
 교육부 거센 정원 감축 압박
 대학 고유 정체성·자율성 잃고
 '기능인력 양성소'로 전락

지방대학이 위기다. 학생들이 없다. 그나마 들어온 학생도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가고 안간힘을 쓴다. '지방 명문대'란 타이틀은 퇴색해 버린지 오래다.

대학 고유의 정체성, 자율성도 잃어가고 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과 무한경쟁식 압박에 순응하며 '기능인력 양성소'로 전락해버렸다.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과 의제를 장악, 논쟁을 주도하며 담론을 생산하지도 못한다. 이렇다보니 지역 사회가 대학에 보냈던 신뢰와 존경, 권위도 매달라가고 있다.

광주일보의 지역 대학의 위상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대학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관련기사 3면>

조선대는 지난해 입학정원을 528명 줄였다. 당시 조선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7만 6000원으로, 정원 감축 규모를 고려하면 35억 7000만원의 등록금이 사라진 셈이다.

조선대 정원 감축은 정부가 2013년 말 내놓은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조선대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대학이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호남대도 비슷한 시기, 266명을 줄였고 광주대는 183명, 동신대는 172명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이 큰데도, 자발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



어두운 현실 불안한 미래 지역 대학이 위기다. 대학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성의 집합소'라는 대학은 '취업사관학교'로,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어두컴컴한 학교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 학생들, 암울한 대학 현실과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실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은 데는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학부 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프라이머리' 등 각종 재정사업을 내걸고 감축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한 게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금껏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 목표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왔다.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뒀다가는 한꺼번에 문을 닫는 대학이 생겨나는 것은 물론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오는 2018년이면 대학 입학 정원(55만 9000명)이 고교 졸업생(54만 9000명)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3년에는 대학 초과 정원이 고교 졸업생(39만명)에 견줘 1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광주만 해도 고등학생 수는 6만 8000명(2011년)에서 지난해 6만 3900명으로 줄었고 2020년 4만 8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 3 학생도 지난해 2만 1000명이던 숫자가 2020년엔 1만 6000명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 인식 아래 ▲1단계(2015~2017학년도) 4만명 ▲2단계(2018~2020학년도) 5만명 ▲3단계(2021~2023학년도) 7만명 등 단계별로 16만명을 줄이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입생 수를 걱정하는 지역대학 현실이 달라진 건 아니다.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이 거점대학보다는 서울의 '중간급' 사립대학을 선호하고 지역 내에서도 사립 지방대에서 거점 대학 등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그대로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최근 학술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신입생 경쟁률(수도권 소재 대학 10.34%·지방 5.69%) ▲신입생 총원률(수도권 97.34%·지방 94.91%) ▲중도탈락률(수도권 3.92%·지방 5.60%) 등은 열악한 지방대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수도권 집중화 지표'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지역 인제가 몰리면서 지역대학 경쟁력은 악화되고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방침대로 정원은 줄이고 교육부 눈치보느라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는 데다, '수도권 집중화' 실태는 여전하면서 지방대는 아우성이다. 생존 문제와 연결, "국내 신입생 유치는 한계에 달했다"며 아시아 등 해외 지역을 돌며 협약을 맺고 대학생 유치에 매달리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 등으로 정부가 인위적 정원 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지역대 공동화 현상' 개선이나 대학의 질적 도약을 유도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나 그 대처 방식도 다른데, 정원 감축 실적과 연계해 대부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 경쟁력 확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나마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남은 감축 계획이 이뤄질 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정원 축소를 지향한 결과, 지방대 기초체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37%인 수도권 소재 대학에 전체 대학 재정 규모의 43.3%를 투입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고등교육 양과 질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관련기사 2·14면>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 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엔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결정했다며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 문화지수 郡 1위

문광부, 229개 지자체 조사
 진도군 3위·광주 동구 10위

강진군이 전국 군 단위지역에서 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꼽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역문화지수'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자원·활동·향유 등 4개 대분류 27개 지역문화지표를 적용, 산출한 값이다.

강진군은 군 단위 지역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진도군은 3위에 올랐다. 광주시 동구는 구 단위에서 10위에 포함됐다.

강진군은 정책수립과 실행, 예산집행을 평가하는 문화정책 부분에서, 광주 동구는 문화자원, 인력 등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진군은 지역문화 정책부분이 특화된 지역으로 확인됐다"며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비율, 인구 1000명당 문화예산 규모, 문화예술강화 예산 규모 등의 지수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역문화지수 종합순위에서는 전주시가 1위, 경기 수원시가 2위, 경남 창원시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부천시 4위, 경북 안동시 5위에 이어 전남 강진군이 6위에 올랐다.

조사결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문화지수 격차는 0.039(수도권 0.028, 비수도권 -0.011)로, 2012년 기준 조사 때인 0.197(수도권 0.140, 비수도권 -0.057)에 비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체부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입장을 고려해 문화지수가 낮은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제 61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심사평 ▶ 16~18면
 광주·화순 공동학군제 부활하나 ▶ 6면
 아이슬란드 '얼음 축구'의 마법 ▶ 20면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홍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통처: 하이닉스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료 무료) www.hera.co.kr